



박물관광
사랑드림

2008년 여름 22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보 제141호 청동잔무늬거울 [靑銅多鈕細文鏡]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충남 논산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약21.2cm 크기의 초기 철기시대 동경이다. 동심원·단사선·단선으로 기하학적 무늬를 배치하여 뛰어난 공간 구성을 보여준다. 무늬의 선이 매우 정밀할 뿐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예술적 가치가 높 이 평가된다.

박물관 사람들

기획 | 동경

- 04 태양의 빛을 담은 청동 거울
- 08 「懺悔錄」 윤 동 주
- 09 작은 圓 속에 그려진 세상
- 12 청동거울의 보존처리

전시실산책 I

- 13 茶仙이 되어 먼 산자락을 보다

우리문화 사랑

- 16 선은 분명하게 색은 은은하게

전시실산책 II

- 18 기와는 살아있다

옛사람 옛보기

- 20 추사 김정희와 漢代 동경

회원마당

- 22 그림으로 떠나는 터키여행
- 26 고양이와 나

전시소개

- 29 국보 제301호 화엄사 괘불

자원봉사를 하면서

- 30 내 삶의 본.자.즐.모

박물관회 소식

- 32 하나금융지주, 국립중앙박물관과 후원 협약체결
- 33 국립중앙박물관 후원음악회
- 34 미르폭포
- 35 국립중앙박물관회는

태양의 빛을 담은 청동 거울

고고관 한편 가지런히 놓인 동근 靑銅유물, '銅鏡'이다. 오랜 세월을 담고 있는 탓인지 일반적인 거울이란 통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세월의 녹이 가득한 동경을 조용히 바라다보면, 어느덧 내게는 신비로움 가득한 요술경이 되어 다가온다.

동경은 동판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만든 청동거울이다. 인류의 동경 사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약 4천 년 전 이집트인들이 최초로 청동거울을 제작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원전 10세기경 청동기시대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는 크게 요령식동검문화기와 한국식동검문화기로 나눌 수 있다. 요령식동검문화기에는 요령식동검과 그 일괄유물들이 나오는데 이때는 청동기 제작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식동검문화기에 와서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제조되었으며, 청동기전성시대에 해당한다. 동경은 주로 이 시기에 나타난다. 청동은 기본적으로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이루어진다. 제작공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납·아연 등을 첨가하는데, 납은 거푸집에 잘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거울 뒷면에는 여러 문양을 새겨 넣어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장식문양은 당시의 사회생활과 신앙·사상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동경은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며,紐의 수가 대부분 2개인 多紐鏡인데 간혹 아래쪽에 소형紐가 하나 더 있어 세 개인 경우도 있다. 반면 중국의 거울에는 뒷면 중앙에 한 개의紐가 있다. 거울면은 편평하거나 오목하여 중국의 것과 다르다. 거울 뒷면에 빗금과 직선을 이용해 기하학적인 무늬를 새겨 넣은 것도 큰 특징이다. 다뉴경은 무늬의 거칠고 고움에 따라서 거친무늬거울[粗文鏡]과 잔무늬거울[精文鏡]로 나뉜다.

다뉴 거친무늬 거울, 청동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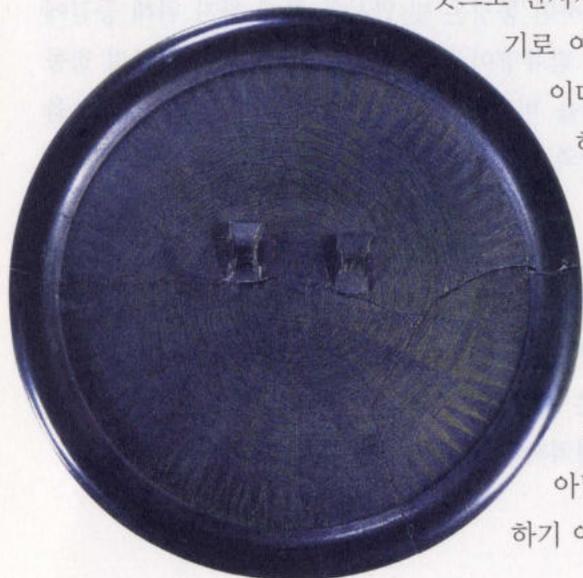
초기 한국식동검문화기에 나타나는 거친무늬거울의 일부는 요령식동검문화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요령성의 조양·심양 등지에서 출토되는 거친무늬거울에서 그 계보를 찾아볼 수 있다. 대전 괴정동유적에서는 요령지역에서 보이는 덧띠토기와 흑색토기긴목항아리 등의 토기와 靑銅儀器가 출토되어, 요령식동검문화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이 유적에서 거친무늬거울과 함께 한국식동검·동종방울·곱은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들은 고대 일본왕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신에게 받은 세 가지 보물'인 칼과 거울·곱은옥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식동검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어 야요이문화성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거친무늬거울은 지그재그를 이룬 번개무늬나 별무늬 등을 사용했다. 점차 후기로 가면서 圓무늬가 추가되고 태양무늬로 바뀌어가며, 무늬구성도 다양해지고 정교해진다. 평북 맹산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거친무늬거울 거푸집을 통해 거친무늬거울 주조시 석제거푸집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거푸집의 앞뒷면 모두에 거울 뒷면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거친무늬거울이 잔무늬거울로 변해가면서 석제거푸집도 고운 흙으로 만든 거푸집으로 발전해간다.



傳 맹산출토 거친무늬거울 거푸집, 청동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B.C. 3세기경부터 기원전후의 시기까지 한국식동검과 함께 사용된 대표적인 청동기가 잔무늬거울이다. 外區에는 빗금이 간 삼각문을 방사선상으로 배치하고 多重圓圈文을 표현하는 등 무늬가 매우 정교해진다. 거울 크기도 거친무늬거울에 비해 큰 것이 많으며, 늪의 양쪽 끝부분이 약간 넓어지며 정형화된다. 대부분의 잔무늬거울에는 태양무늬가 새겨져 있고, 얼굴을 비추어보는 기능보다는 햇빛을 다른

곳으로 반사시켜주는 도구였을 것이라고 짐작되어 태양을 상징하는 의기로 여겨진다. 국보 제141호 청동잔무늬거울은 크기가 21.2cm이다. 그 안에 동심원·단사선·단선으로 기하학적 무늬를 배치하여 뛰어난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무늬의 선이 매우 정밀할 뿐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예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거울 안에는 지름 2cm인 여덟 개의 동심원이 있다. 각각의 원 안에는 多齒具를 사용해 한 번에 같이 그린 20여 개의 동심원이 들어있다. 동심원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작은 공간 안에 이렇듯 많은 수의 원을 새긴 것은 간절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청동기주조 최고 전성기작품으로 현대 기술로도 표현하기 어렵다하니 그들의 놀라운 솜씨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다뉴 잔무늬 거울, 초기철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남 화순 대곡리 출토유물 일괄, 청동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경을 비롯한 청동기류는 광물의 채취와 복잡한 주조과정, 거푸집의 제작 등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하기에 일부 지배자들의 무기나 장신구·의기 등 권위의 상징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생활유적에서는 출토가 드물고, 대부분 고인돌·돌널무덤·돌덧널무덤 등에서 여러 썩은거리와 함께 출토되는 것으로도 그 용도를 짐작하게 한다. 청동기시대 다뉴경은 주로 부장자의 가슴께에서 발견되고, 새겨진 문양이 동심원·별무늬·태양무늬로 神에 다가가는 상징물로 추정된다. 전남 화순 대곡리유적 [국보 제143호]과 함평 초포리유적에서는 동경·동검·팔주령·쌍주령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들은 우리나라 무속에서 신성한 巫具로 여기는 신칼·동경·방울과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조선시대의 무구 중에는 무당이 수호신으로 여기는 明圖라는 거울이 있다. 크고 둥근 청동거울로 앞면은 불룩하고 뒷면에는 해·달·별 그림과 일월·大明斗의 글자를 새겼다. 神房의 巫神圖 상단에 걸어 놓거나, 쌀을 담은 함지박에 명도를 꽂아 뒷면에 붙은 쌀의 수효로 점괘를 보는데 사용했다. 이와 같이 명도에는 신의 영력이 담겨 있고 그 힘으로 인간의 미래를 투시하는 기능을 행한다. 즉 명도는 신의 얼굴을 상징한다. 청동기시대의 동경이 오랜 세월을 이어져 조선시대의 명도와 공통의 연결고리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 외에 동경의 성분분석결과에 의하면 동경은 빛 반사를 좋게 하기 위해 동검에 비해 주석의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청동거울이 얼굴을 비추는 목적보다는 종교적·주술적 기능을 가진 제사장의 의기나 지배자의 권위의 상징물로 추측할 수 있다.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청동기시대 동경을 보며 여전히 놀라워한다. 예술성을 한껏 발휘한 그 솜씨에, 작은 공간 속에 드넓은 세상과 우주 뿐 아니라 나아가 신의 영역까지 담고 있음에. 愛

동경은 크게 圓形과 方形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鐘形·花形·稜形·鼎形 등도 전해진다.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끈을 꿰어 손에 쥐고 사용하는 동경, 손잡이가 있어 얼굴을 비추거나 앞뒤로 마주 들어 뒷모습을 비추는 柄鏡, 걸거나 매달아 사용하는 懸鏡으로 분류된다.



민무늬 걸이거울, 고려, 日本 京都國立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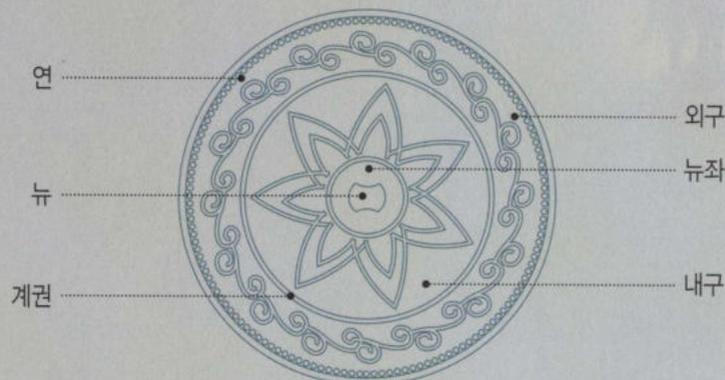
〈현경〉



인물과 학무늬 손잡이 거울, 고려, 日本 京都國立博物館 소장

〈병경〉

동경의 외형은 鈕(꼭지)와 鈕座, 內區와 外區, 緣部로 구분된다.紐는 끈을 꿰어 들거나 경대에 매달아 사용하는 구멍으로, 素圓鈕(아무런 장식이 없는 간결한 양식)·獸形鈕·특수한 형태의 모양이 있다.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紐좌라 하며, 형식은 다양하다.紐좌를 감싸고 있는 내구에는 동경의 主문 양이 들어가는데, 거울 뒷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동물문·식물문·혹은 글자나 인물고사가 표현된 내구의 무늬가 동경의 특색을 나타낸다.素文鏡은 무늬가 전혀 없는 경우를 칭한다. 내구에는 界圈이라는 하나의 구획이 생긴다.계권의 갯수로 단권·이중권·특수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바깥쪽이 한단 높아지는 段圈도 있다.계권으로 구획이 생겼을 때 안쪽을 내구, 바깥쪽을 외구로 구분하며 계권 없이 전면 에 무늬를 새기기도 한다. 내구와 외구 사이에 띠가 있어 여기에 文樣帶나 銘文帶가 놓이기도 한다. 명문대는 제작연대나 제작지를 알 수 있어 동경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緣은 동경의 제일 바깥쪽 부분을 칭하는데 다른 부분보다 약간 높으며 여러 모양을 하고 있다.



懺悔錄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王朝의 遺物이기에
이대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懺悔의 글을 한줄에 주리자
— 滿二十四年一個月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어 왔든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줄의懺悔錄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告白을 했든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속에 나타나 온다.

작은 圓 속에 그려진 세상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 이상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꿈을 꾸지만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는 없다. 반사상이 있어야 나를 볼 수 있다. 흔들리는 물결과 돌에 반사된 흐릿한 모습을 더욱 명확히 보고 싶어 했다. 정성스레 닦은 銅鏡에서 나를 확인했을 때, 그것은 커다란 문화적 충격이었다. 자연에서 문명으로 이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거울 속에서 또 하나의 세상을 보았다. 모든 사물이 새롭게 인식되며 다른 시선이 의식되었다. 그 안에서 나를 꾸미고 타인에게 인정받도록 모습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 세상에는 소리와 생각이 없어 허상에 사로잡힐 수 있다. 나르시스가 물에 비친 모습에 넋을 잃은 것처럼 환상으로 빠져든다. 이 신비한 물건은 불안을 자아내는 덧이자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의 꿈을 그려 넣어, 보이는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상상의 날개를 폈다.



생학파초문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리수문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貞明 4년 3월, 당나라 상인 왕창근은 시장에서 수염과 머리는 하얗고 居士의 옷차림에 낡은 관을 쓴 사람을 보았다. 왼손에는 鉢 세 개를 들었으며 오른손은 사방 한 자나 되는 古鏡을 들고 있었는데 왕창근이 쌀 두 말로 거울을 샀다. 거울 주인은 그 쌀을 길가에 걸식하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왕창근이 거울을 담벼락에 걸어 놓으니 햇빛이 비쳐, 은은히 읽을 수 있는 147자의 銘文이 보였다. 왕건이 등극해 삼국을 통일한다는 예언이었다. 예사롭지 않은 이 내용을 들은 궁예 휘하의 諸將들이 왕건을 추대하였다.

「高麗史」世家 券1 太祖條에 나오는 고려건국에 대한 古鏡說話이다. 건국설화부터 銅鏡이 등장한 까닭인지 고려시대에는 많은 거울이 제작되었다. 삼국과 통일신라를 거치며 거울은 주술적인 상징에서 종교적인 장엄구로 변모 된다. 신라의 寶鏡寺는 창건 당시 八面鏡을 내연산 아래 용당호라는 못에 묻었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동경은 불교에서 진리와 깨달음의 상징이며, 반사된 빛은 윤회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석가탑과 월정사 등에서 출토되고, 고려에 월등히 많은 것도 불교의 영향이 컸으리라 짐작된다. 동경은 고려시대의 독자적인 것과 그것을 다시 찍어낸 模倣鏡이 있다. 제작방법에 따라 중국에서 들여온 舶載鏡, 원경의 문양이나 도안에서 약간씩 변형시켜 만든 倣製鏡, 原鏡을 그대로 틀에 떠내서 찍어낸 再鑄鏡으로 나눌 수 있다. 재주경은 떼어낸 틀을 계속 사용하므로 다량 생산되었고 원경과 반대로 찍혀 금방 알아 볼 수 있지만 무늬가 무디어지고 두께가 줄었다. 고려경에서 같거나 비슷한 문양이 많음은 이런 연유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거울을 고려경이라 부를 만큼 많으나 출토지나 출토상태가 분명치 않아 아쉬움이 따른다.

고려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거울의 뒷면에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을 그려 넣었다. 물가가 그리워지는 계절, 雙鶴芭蕉文鏡에는 시원한 여름 풍경이 마음을 한가롭게 한다. 학 두 마리가 먹이를 찾는 듯 여유롭게 놀며, 다른 두 마리는 어디론가 날아간다. 시원한 파초 잎 아래로 산들 바람이 부는 것만 같다. 중앙의 鈕에 시문된 연화는 아기자기하고 파르르스름하게 올라 있는 녹은 고풍스러움을 보여준다. 여름날의 무더위는 시원한 보리수 그늘 아래서도 식힐 수 있다. 菩提樹文鏡에 잎과 꽃이 무성한 나무 한그루가 우뚝 서 있다. 그 주위로 물결치듯 원을 두르고 꽃송이를 새겼다. 보리수는 땅에 뿌리를 박고 굵은 줄기가 위로 뻗었으며, 뉴를 피해 돌로 갈라진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위로 올라간 두 개의 줄기는 다시 한 곳으로 합쳐져 꽃과 잎이 탐스럽게 우거진다. 바람이 살짝 불어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 같기도 하고 여덟 동자가 보리수 밑으로 모이는 것 같아 흥미롭다. 보리수는 꽃말이 '解脫'로 부처가 그 아래서 깨달음을 얻어 시공을 넘나드는 명상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앞면을 보면서 물질세계의 탐욕에 빠져들고, 뒷면에는 세속의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담았다. 동경만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다.



용수전각문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 동경의 아름다움



황비창천경, 고려, 日本 京都國立博物館 소장

사람은 거울 앞에서 완성 되지만 그 안에서는 꿈을 꾸다. 龍樹殿閣文鏡은 다른 동경에 비해 크기가 크고 수량도 많은 편이다. 물속에는 꿈틀대는 용이 파도 위로 승천하려는 듯 요동 치고 그 위에 무지개 모양의 다리가 놓여 있다. 다리 위로 탑을 든 사람이 지나가며 두 손을 모은 사람이 따라간다. 누좌는 구름에 둘러싸여 왼쪽은 전각이, 오른쪽은 큰 나무가 덮고 있다. 전각은 柱心包로 격자문살이나 기와의 골 등이 고려시대 건축 양식임을 보여준다. 높이 솟아 있는 나무의 잎이 생동감 있게 흔들린다. 전각 주위에 구름이 자욱하게 깔려 있으며 그 아래 구름 탄 仙人 셋이 있으니 그야말로 신선의 세계이다. 굽이치는 파도가 아름다운 仙境이다.

또 대외교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동경도 있다. 거친 파도에 배 띄우고 힘차게 항해하는 것으로 '煌丕昌天'이란 명문을 새겼는데, 빛나고 창성한 세상으로 나가는 씩씩한 고려 사람들의 기개가 담겨 있다. 高麗國造銘銅鏡圓形鏡은 시원한 넝쿨무늬가 화려하게 시문되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동이 귀해 거울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고려에서 수입해 갔다고 한다.

거울은 매일 여인을 불러 자신의 매력을 확인하게 한다. 그 형태 또한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鐘形鏡은 거울의 뒷면에 시문하던 문양을 앞면에 넣었다. 동그랗게 거울 면을 만들고 그 주위로 모란을 그렸다. 거울의 꼭지에 구멍을 뚫어 걸 수 있게 만들었다. 점차 실제의 쓰임새인 화장 도구로 자리를 잡아간다. 화장을 할 때는 동경을 어떻게 세워 놓을까. 구멍을 뚫어 걸기도 하고 손잡이를 만들어 이리저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도 한다. 편안하게 동경을 세워 놓고 화장 할 수 있는 거울걸이도 있다. 鐵製銀象嵌鏡架는 두 개의 다리를 서로 어긋나게 세워 동경을 가운데 비스듬히 놓을 수 있게 하였다. 상단에는 도금한 은제 연봉우리로 장식했으며 교차되어 있는 다리 또한 화려함이 이를 데가 없다. 궁중에서나 사용 되었을 이 경가는 자신을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조선시대에 경대가 만들어지면서 거울걸이는 차츰 자취를 감춘다.



종형경, 고려, 日本 京都國立博物館 소장

거울이 일반화되자 신비가 사라졌다. 소중히 여기고 닦았던 여인들의 마음결이 남아 있는 동경은 박물관 한 귀퉁이를 장식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제 거울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한 사람만이 나를 본다. 리

청동거울의 보존처리

청동거울의 보존처리는 유물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청동거울은 구리와 주석을 주성분으로 소량의 납을 첨가하기도 한다. 합금에 주석의 양이 많을수록 은백색에 가까워지며 단단해지기 때문에 잘 변형되지 않는다. 그러나 쉽게 깨어지는 단점이 있어 발굴된 청동거울은 깨진 것이 많다. 발굴 상태로는 부식을 막을 수 없고, 연구나 전시 등에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존처리를 한다.

본 작업에 앞서 상태를 상세히 조사한다. 육안으로 외관상 특이점을 관찰하고, 사진촬영과 X-선 촬영, 현미경 관찰, 실측 등을 통해 입사나 문양의 존재 여부, 균열, 부식정도, 손상부위, 무게, 크기 등을 기록한다. 또한 이물질과 녹이 해로운 것인지 성분분석을 통해 조사한 후 제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보존처리 방법을 선택한다.

보존처리의 첫 단계는 이물질제거이다. 원래 거울 표면에 없었던 물질 중 보존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문양 등을 가리고 있는 물질을 제거한다. 현미경을 보면서 붓이나 메스 등으로 제거하는 물리적인 방법과 이물질을 약품 등으로 용해시켜 제거하는 화학적인 방법이 있다.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평탈경의 보존처리

위 사진의 청동거울은 녹과 이물질이 문양의 금속을 변색시키고 보이지 않게 하여 물리적 방법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예이다. 이어서 부식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일주일 정도 특수 약품에 담가 방청처리를 한다. 다시 꺼내어 말린 다음 보호코팅을 하는데, 공기 중의 수분이나 해로운 물질들이 거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때 액체로 된 합성수지에 청동거울을 담갔다 꺼내어 건조시킨다. 만약 파손된 거울인 경우 편들을 붙이고 사라진 부분을 복원해 준다.

이상의 과정을 마친 후 사진촬영과 함께 그동안 사용한 재료와 방법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서 연구 및 보존처리의 기초자료로 영구관리하게 된다. 처리가 종료된 청동거울은 전시나 수장이 되는데 이것으로 청동거울의 보존절차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보존환경은 $20 \pm 2^{\circ}\text{C}$ 에서 상대습도 45%이하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선조가 물려준 청동거울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후손들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茶仙이 되어 먼 산자락을 보다

柳建楫 | 회원 |

내 집이 깊은 산 속에 있어 매년 여름이 들 때면 푸른 이끼가 계단을 뒤덮고 떨어진 꽃잎이 길에 가득하다. 소나무 그림자가 들쭉날쭉 드리우고 온갖 새 지저귀는 가운데, 한잠 자고 일어나 산샘물 길어다 솔가지 주워 차 끓여 천천히 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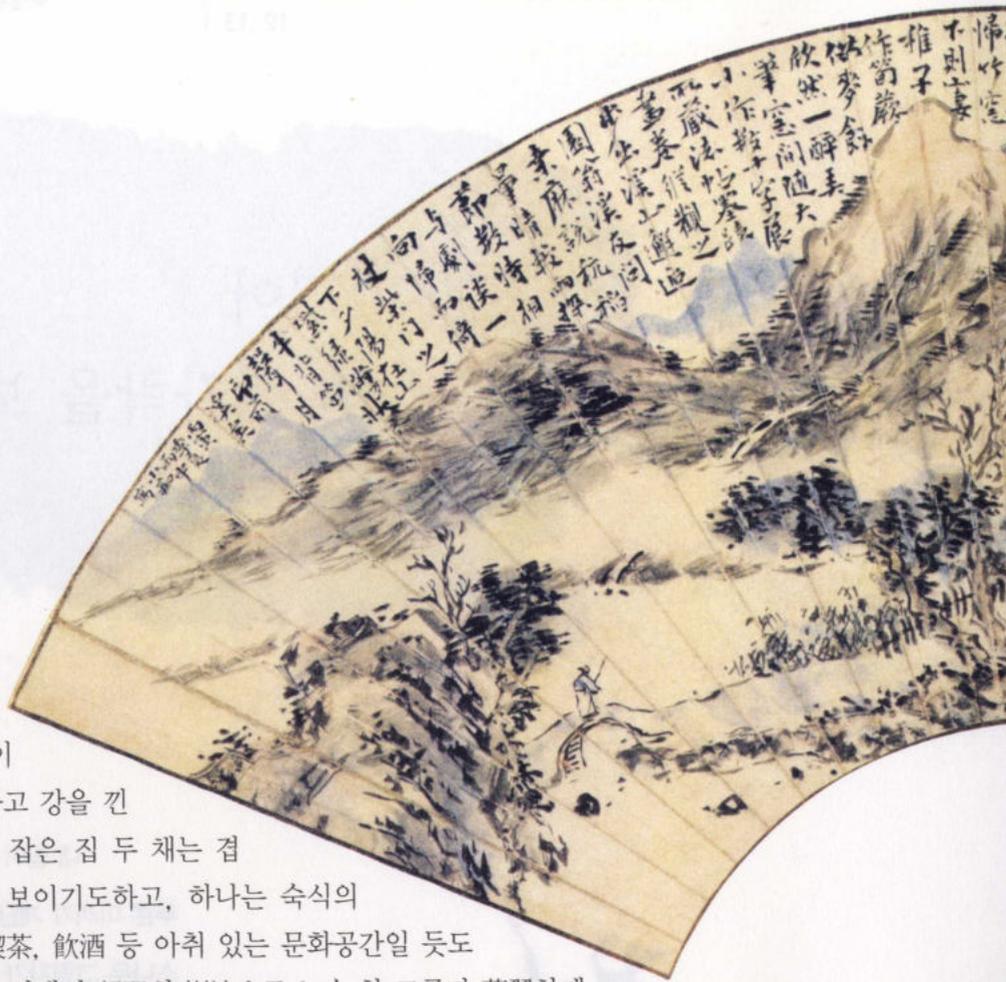
마음 내키는 대로 周易, 詩經, 春秋, 離騷와 司馬遷의 글을 보고, 陶潛과 杜甫의 詩를 읊으며, 韓愈와 蘇軾의 문장 몇 편을 읽는다. 그리고 한가로이 산길을 걸으며 松竹을 어루만지고, 때로는 짐승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피곤하면 풀밭에서 쉬며, 흐르는 물가에 앉아 이도 닦고 발도 담근다.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순박한 아내 어린 아들과 함께 나물 반찬에 보리밥 달게 먹고 한 잔 술에 흥연히 취해, 창 아래서 붓을 들어 몇 자 쓰다가 法帖과 畫卷을 펼쳐보기도 한다.

잠간 산 개울에 나가 전원에 사는 벗들을 만나서 농사와 時節 얘기를 재미있게 한 후, 지팡이에 의지해 사립 아래 이르면 서산 위에 석양이 걸리고 온갖 색깔 아름답게 물든다. 이 때 멀리서 소를 타고 돌아오는 목동의 피리 소리 들다 보면 이윽고 달빛이 앞개울에 비치고 있다.

모교 강단을 지키는 K 교수를 만나러 갔다가 시간 여유가 있기에 박물관에 들려서 본 그림 얘기다. 이미 影印된 畫帖에서 익히 본 작품이지만 직접 대하기는 처음이다. 조명이 좀 흐리긴 했으나 한참 바라보는 사이에 내 자신이 그림 속으로 몰입되어 갔다. 작은 扇面이 그림으로 가득 차고 그 위에 題跋 200여자가 빼곡히 細筆로 쓰여져 작가의 정성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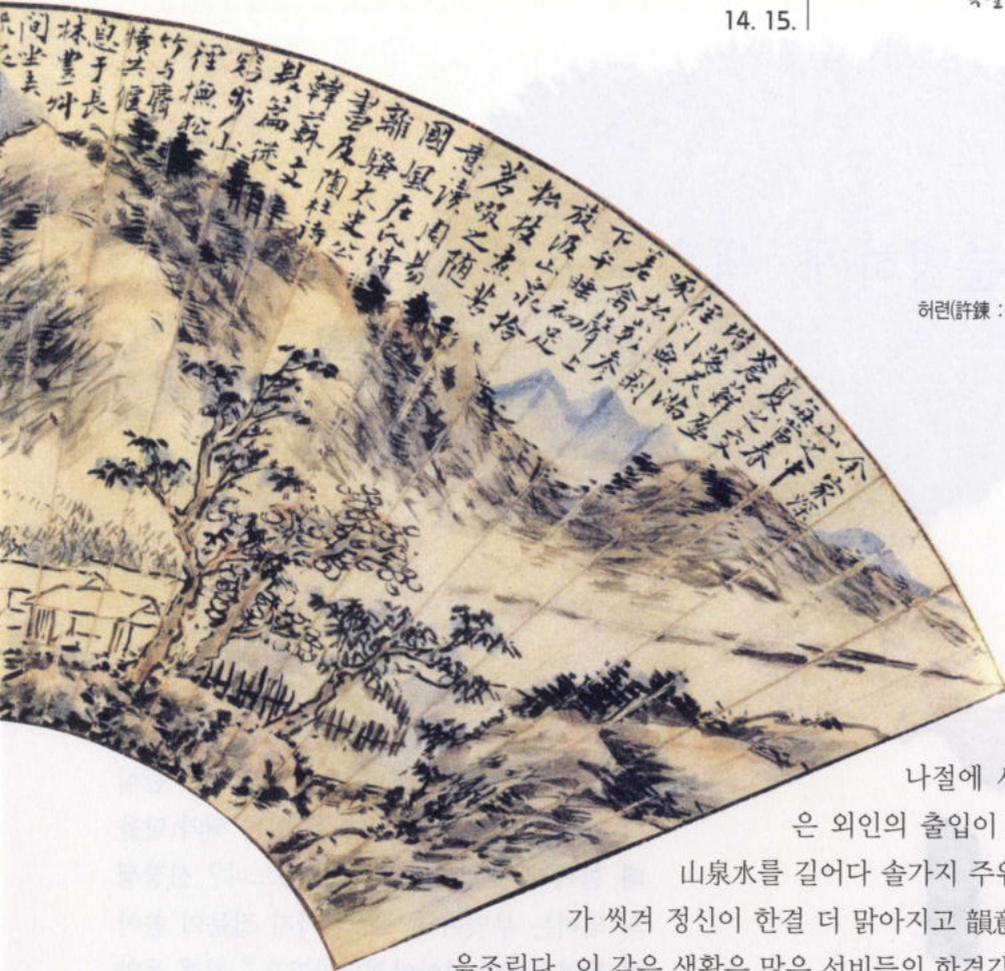
이는 小痴 許維가 자신의 扇面 풍경 위에 붙인 題跋의 내용을 간추려 옮긴 것이다. 그림은 초여름 산을 마주하고 강을 낀 山家의 경관이다. 중앙에 자리 잡은 집 두 채는 겹쳐 보이지만 안채와 바깥채로 보이기도 하고, 하나는 숙식의 생활공간이고 한 채는 讀書, 喫茶, 飲酒 등 아취 있는 문화공간일 듯도 하다. 집 옆에는 나직한 巖丘에 기대어 郭熙의 樹法으로 노송 한 그루가 蒼翠하게 섰고, 관목 두 그루가 介字點과 夾葉法으로 그려진 무성한 잎들을 달고 조금씩 낮게 보좌하고 있다.



적당히 넓은 마당에는 등성등성 낮은 木柵이 둘러있어 여유롭고, 울 밖에는 나직나직한 나무들과 山竹 한 무더기가 잎을 아래로 내리고 있다. 한쪽의 나무 사이에 앙상한 가지만 남은 고사목은 오랜 세월을 등지고 서 있다. 왼쪽 虹橋 위에 靑藜杖을 짚은 주인공이 한가로운 자세로 집을 향해 느릿느릿 걷고, 다리 아래 물이 집뒤로 흐르는 것으로 보아 이 집은 물로 둘러싸인 곳이다. 다리 옆 조그만 巖山에는 나무 몇 그루가 石壁에 보기 좋게 붙었고, 오른쪽으로는 마당에 잇달아 너럭바위가 펼쳐 있어서 휴식과 觀景에 좋은 곳이다.

물 건너엔 높직한 山峰이 급하고 그 너머에도 또 그 너머에도 청록의 高峰들이 아스라이 솟아 있다. 가까운 산들은 대부분 난마준으로 그렸고, 먼 봉우리들은 淡墨의 沒骨法을 써서 원근을 잘 표현하였다. 그리고 산은 양쪽으로 뻗어 나직나직한 連峰들로 이어져 畫面 밖으로 달려 나갔다.

여름날 아침에 시원하게 한 차례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개이기 시작해서 건너 산기슭에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짙은 것으로 보아 그 쪽이 상류인 듯하다. 초목의 잎들은 물기를 머금고 지면으로 향하고, 계곡에는 꽤 많은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몽환적 선경을 연출한다. 平遠法을 구도로 쓴 것이나 나무를 그릴 때에도 三樹對位에 맞고, 바위도 石濤나 王叔明의 기법이 아니면 二米石法을 지킨 것은 기본을 중시하는 대가다운 풍모가 서렸다. 南宗 문인화가 王維를 흠모하여 이름도 維, 字도 摩詰로 바꾸었으니, 만년 雲林山房에서의 생활에서 그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허련(許鍊) : 維, 扇面山水圖, 1866년 여름,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푸른 이끼가 계단을 뒤덮고
떨어진 꽃잎이 길에 가득한데, 아침
나절에 새소리 들으며 낮잠을 즐긴다면 이곳
은 외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 閑裕한 세계다. 단잠 깨어
山泉水를 길어다 술가지 주워 차를 끓여 천천히 혼자 마시니 心累
가 씻겨 정신이 한결 더 맑아지고 韻意가 무르익어, 옛 시문을 내키는 대로
 읊조린다. 이 같은 생활은 많은 선비들의 한결같은 希願의 세계였다.

물가에서 고기도 보고, 이도 닦고 발도 씻으며 그는 바로 자연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러다 시장기 들면 집에 와서 정다운 가족들과 蔬食이라도 오순도순 달게 먹고, 술 한 잔에 흥이 동하여
붓으로 몇 자 쓴다. 시간 나면 산중 친구들과 담소하고 석양을 등지고 청려장에 의지해 牧笛소리 들으며
집에 이르면, 벌써 달이 앞개울에 비치는 이 고아한 山생활은 진정 茶人이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禪의 세
계다.

그림 앞을 떠나려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길을 돌려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畫幅을 열고 사
림에 이르렀다. 기다리길라도 한 듯이 잔잔한 미소를 띤 素顔으로 나와서 서로 목례하고 함께 나무 아래
露根에 앉으니, 옛 고향에 돌아와 오래 전 헤어진 벗을 만난 듯 마음이 편안했다. 그는 아이에게 차 한
잔을 따르게 했는데, 松籟를 타고 퍼지는 맑은 향에 정신이 쇠락해지고 그 맛이 신선하여 몸이 가볍게
떠오르는 듯한 仙氣가 서렸다.

내가 눈으로 묻고 그가 마음으로 답한다.

‘세상을 등지고 사는 맛이 어떠하십니까?’

‘나는 은둔도 絶緣도 아니다. 그런 말들은 상대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揀擇도 思量도 아무
것도 없다. 마음에서 이미 모두 떠나고 없으니, 나무와 풀들은 내 몸의 한 부분이고 새소리 바람소리는
나의 말이며, 그들의 변환은 내 詩心일세. 이제 나도 그대도 없고 그들도 없으며, 經도 없고 禪도 없는데,
다만 우리 앞에 茶盞만 있을 뿐이네.’

그리고 우리 둘은 한동안 말없이 먼 산자락만 바라보았다. 🌿

선은 분명하게 색은 은은하게

民畵 작가 박현희



“심장생이나 화조영모도, 책가도 등 민화는 주제가 다양하고 색도 화려할뿐더러, 선도 분명해서 끌렸습니다. 제가 원래 섬세하고 예쁜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패랭이꽃과 방아깨비가 그려진 명함의 주인공, 박현희 회원은 민화작가답다. 작품에 대한 뜨거운 열의가 가냘픈 몸 어디에 숨어있을까. 희고 긴 손가락이 가는 붓을 닮았다. 강렬한 색과 단순한 선, 세밀한 필치로 오히려 외국에서 더 주목받고 있는 우리 민화. 이름 없는 화가들이 같은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렸다는 이유로 한때는 전문가들의 외면을 받은 적도 있으나, 지금은 한국적인 특성을 오롯이 드러내는 그림으로 평가받는다.

“저희 집에 외국인 손님들이 많아서 궁궐 등을 안내하다보니 저절로 민화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일월오봉도에 있는 해와 달을 왜 흰색과 붉은 색으로 표현했느냐? 심장생의 의미는 무엇이나?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알아야겠더라고요.” 원래 동양화에 관심은 많았지만 민화는 90년대 초에 인사동이나 문화센터 등지로 선생님을 찾아가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작가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는 99년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연 전시회를 통해서다. 파리에서 받은 호평과 당시 한국문화원장으로 있던 지건길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격려에 자신을 얻은 것이다.



이왕 시작했으니 실기뿐 아니라 우리 문화 전반에 관한 견문을 넓혀야겠다고 생각하고, 2001년 박물관 특설 강좌에 등록했다. 특히 안휘준 교수와 이태호 교수의 한국 미술사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화단에서 제대로 인정 해주지 않았던 민화라 강의 들을 곳 또한 마땅히 없었기 때문이다. 함께 연구 강좌를 듣는 회원들의 지지도 강의에서 얻는 기쁨 중의 하나라고 덧붙인다. 이곳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쉽게 공감대가 생겨서 좋단다.

그림 그린 지 이십여 년, 몇 해 전부터는 민화에 관한 자료 수집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조선 시대 민화의 다수가 외국 수집가들에게 넘어간 현실이 안타까워요. 아직 소개되지 않은 민화를 찾아서 사진을 찍는 중입니다. 민화는 대중들의 주문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라 지방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야깃거리가 많고 재미있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과제는 민화의 쓰임새와 색채다. “민화는 본을 따라 그대로 모사하기만 하는 그림이 아니라 계승 발전시킬 영역이 넓은 분야입니다. 이전엔 주로 병풍에 그려졌지만 요즘 병풍은 잘 쓰지 않죠. 그래서 두 쪽짜리 가리개나 벽에 거는 액자 크기로 많이 그리죠. 그러다 보니 십장생도 같은 큰 그림 대신 초충도나 화조도 들을 주로 그립니다. 색채 또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민화가 원색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채의 특성상 물감을 섞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가구와 어울리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저는 채도를 낮추어서 현대의 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함 같은 전통가구 표면에도 넣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개인전에서 70여점의 작품을 전시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민화의 전통 색을 고집하지 않고 과감하게 중간색을 써서 시선을 끌었다. “또 언제 하느냐고요? 민화는 그리는데 오래 걸려서 최소한 이삼년이 지나야 전시회를 할 수 있어요. 식구들 밥도 안차려주고 그려도요.” 병풍 한 점 완성하는데 꼬박 두세 달이 걸리는 민화 그리기에는 시간과 공이 한없이 들어간다. 무엇이든 쉽고 빠른 것만 찾는 요즘, 어렵고 느린 길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낸 그의 대답은 거침없이 시원하다. 🌿 진



기와는 살아있다

하영남 | 회원 |



흔히 한국미의 특징을 소박함에 둔다. 소박한 것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입을 꼭 다문 채 숨어 있다. 어느 눈 밝은 사람의 부지런한 손이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긴 세월이 걸린다. 은근히 오래 어루만져 주어야 자태를 드러낸다. 유금와당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정성을 다해 모으고 선별한 기와들로 <한국와당 수집100년 명품 100선>이라는 개관기념 전시회를 개최했다.

인동문변형막새는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회갈색 경질의 막새는 용도를 알 수 없다. 아래쪽 중앙이 움푹 들어간 희귀한 모형 때문이다. 이 막새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평양지역으로 국한되는 희소성만이 아니다. 자체가 매력덩어리이다. 동그스름한 주연부의 선을 따라가면 완만한 하트가 그려진다. 막새면에는 중앙의 인동꽃을 두 잎사귀가 받치고 있는데, 마치 마음을 감싼 듯하다. '몸을 구부려/ 아이를 가슴에 꼭 품어 안고 잠든 어미의 얼굴에서/ 산짐승들의 강한 겨울을 읽는다' 이시영 시인이 그려낸 건 강한 母性的의 <忍冬>이 거기 있다. 꽃과 잎은 양감이 풍부한 부조 작품이다. 문양마다 가장자리에 테를 두른 정성하며 굽고 깔끔한 터치가 어우러져 완벽한 조형성을 갖추고 있다. 한 떨기 풀이 이리 당차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확신으로 푹푹 뭉친 사람만이 빛을 수 있는 선이 있다. 이런 집에는 강하면 서도 부드러운 고구려 여인이 살았을 것 같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원시의 아름다움이 넘치는.

蟾文과 蛙文의 두 반원막새는 공통점이 많다. 모두 이우씨家 소장품으로 이번이 첫선이다. 크기는 다르지만 긴 타원형을 반 잘라놓은 모양하며 두꺼비와 개구리는 생긴 것도 비슷하다. 포즈도 익살스럽다. 네 다리를 짹 펼치고 큰 입을 벌려 웃는 두꺼비의 표정은 장난기 가득하다. '봐, 봐! 내 다리 잘 찢어지지? 넌 나처럼 할 수 있니?'하는 얼굴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짝 부족했는지, 선각으로 귀면이 새겨져있다. 액을 물리쳐 줄 것 같지는 않다. 기껏 두꺼비 몸통 위에 올려진 귀면이 힘을 얼마나 쓰겠는가? 위엄을 부리고 싶어하는 두꺼비의 마음을 귀면에 담은 듯하다. 네 발에 발찌까지 더한걸 보면 瓦工의 장난기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와문은 상당히 사실적이다. 팽팽한 옆구리를 보이며 엎드린 개구리는 당장이라도 와글와글 울음소리를 토해 낼 것 같다. 반원막새도 용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어떨까? 비라도 쏟아지는 날이면 이들 섬와는 막새를 툭툭 털고 일어나 지붕이 들썩이도록 뛰어

다닐 것이다. 기와지붕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그리 좋은 이유는 그들의 은근한 분탕질이 섞인 탓이리라. 多産을 기원하면서도 해학이 넘쳐난다. 한때 동북아를 지배한 고구려인들의 힘의 원천은 이런 여유가 아닐까 싶다.



우리 기와의 절정기는 통일신라시대라고 한다. 경주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귀면기와를 보면 그 말을 실감할 수 있다. 삼국 기와의 멋이 다 들어있다. 특 불거진 눈알과 부리 부리한 눈썹, 이마의 뾰족한 뿔은 어떤 사악한 기운도 물리칠 태세이다. 한껏 벌린 입이 문제이다. 송곳니만 드러냈다면 모를까, 혀는 왜 깨물고 있는 것일까? 어여쁜 손녀를 야단치는 할아버지의 표정이다.



비천문암막새에는 불국정도를 꿈꾸는 통일신라인의 염원과 화려한 예술적 경지가 극치를 이룬 작품이다. 중앙의 향로를 중심으로 천의를 걸친 비천이 허공을 날고 있다. 다른 암막새와는 달리 상단이 특 튀어 나왔다. 비천이 사는 천계를 상징적으로 표현 하려는 듯 섬세한 구름 문양이 새겨졌다. 삶의 안녕을 위해 기와집을 지었지만 지붕을 통해 승천하기를 바라는 신라인의 이상을 엿볼 수 있는 와편이다. 삶 속에서 예술과 철학을 함께 즐기다니 현대인이 어찌 이런 호사를 꿈꾸겠는가.

어느 한 조각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명품들이다. 한국 와당을 시대별로 전시해서 특징과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살피게 한다. 그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고구려 와당이 33점이나 된다. 5년 전 유창종 국립중앙박물관회장은 약 이천 여점의 와전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유창종와전실이 개설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어떻게 이토록 훌륭한 작품이 가득한 사설 박물관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의 끊임 없는 기와 애호와 이우치家에 남아있던 미반환 수집품을 인수하면서 가능해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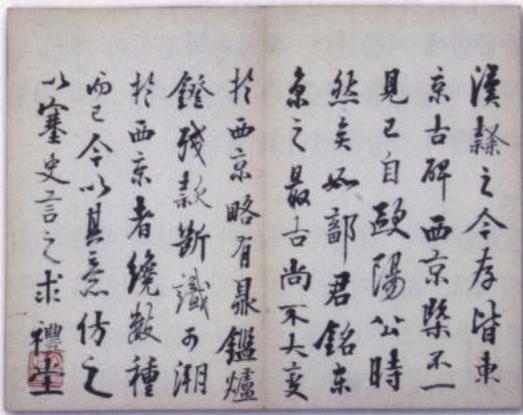
“와당에는 선조의 삶이 스며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와 사상과 예술적 감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재료이지요.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심미안을 가꾸고, 청출어람의 특성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와당을 비교 연구하다보면 사고의 틀도 커지겠지요. 그래서 한국이 와당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의 혜안이 와당에게 빛을 주었다. 진심은 마음으로 읽는 법이다. 소박한 와당에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밝혀내는 건 꾸준한 사랑뿐이다. 사랑, 그것 밖에 난 모른다. 🐉

추사 김정희와 漢代 동경

秋史 金正喜(1786~1856)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바탕으로 치밀한 고증학을 자신의 학문에 적용하고 있다. 금석학도 淸學으로 대변되는 고증학의 한 면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청나라 때부터 고증학이 발달했는데, 고증학의 중요한 연구분야의 하나로 고대의 기물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송대에 편찬된 歐陽脩의 『集古錄』·『博古圖』등으로도 그 계보를 찾을 수 있고, 건륭 14년(1749) 칙령으로 『宣和博古圖錄』의 형식을 모방하여 『西淸古鑑』40권 등을 간행하게 된다. 이로부터 금석학은 독립된 학문 분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중심에 추사와 학연을 맺은 翁方綱(1733~1818)과 阮元(1764~1849)이 있었다.

해동제일의 글씨라는 추사체에서 隸書는 가장 중심적인 서체이다. 이는 추사의 예서가 다른 서체에도 두루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정희는 어떻게 예서를 학습했을까? 젊어서는 주로 세련된 東漢代의 예서를 배우다가 점차 고졸하고 정제되지 않은 古隸를 추구했다고 한다. 그는 예서 중에서도 한대 금석문을 애호했고 특히 鏡銘을 즐겨 임서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臨漢鏡銘帖』 말미에 쓴 글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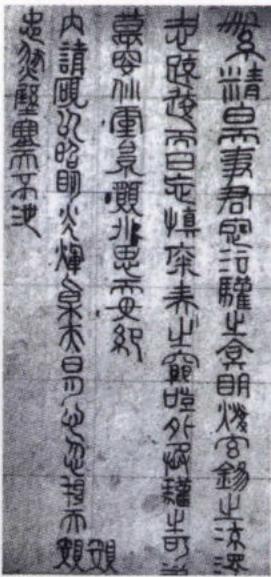


『臨漢鏡銘帖』, 종이에 먹, 26,7x33.8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한대의 예서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모두 동한시대
의 古碑이고 西漢시대의 비석은 한 개도 나타나지 않았으
니, 이미 宋의 歐陽修가 살아있었을 때도 그렇다. 鄱君銘은
동한시대의 가장 오래된 碑이지만 여전히 서한시대와 비
교한다면 크게 변모한 것이 아니다. 대략 鼎·鑑·爐·鏡에
남아 있는 몇 글자를 가지고 서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겨우 몇 종류뿐이다. 지금 서한시대가 가지고 있는
서체의 의미를 모방하여 써서 史言의 요구에 응한다.

禮堂. 『臨漢鏡銘帖』

김정희는 오래된 금석문에서 한예의 정수를 찾으려 했지만, 당시 서한의 비갈을 찾기 힘들었고 경명
이나 한대 금석문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漢隸筆帖』에 실린 경명을 임서한 예는 앞서 언급한 청동기 도록 등
에서 확인된다. 『書道全集』 2권에 실린 서한 동경인 중권정백경을 비교하면, 김정희가 보았던 명문은 마멸이
있어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고 몇몇 오자를 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김정희, 臨漢鏡銘, 종이에 먹, 29.5x16.5cm, 「漢隸筆帖」중, 개인소장



重圓精白鏡, 漢, 탑본, 지름17.5cm, 「書道全集」2



元壽元年(B.C. 2년)鏡「臨漢鏡銘」, 종이에 먹, 52x31cm, 개인소장

이 외에도 개인 소장본으로 전하는 몇 편의 한예 임시 목록에는 紀年鏡 3점이 보고되었다. 1점은 元壽元年(B.C. 2년)鏡이고, 나머지 두 점은 永康元年(A.D. 167년)鏡이다. 이 두 점은 동일기년이지만 명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더욱이 이 기년경은 여러 점이 도판으로 확인되지만 추사가 임시했던 동경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우리는 당시 이 기년경이 여러 점 제작·분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더러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에게서 옛 유물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의 단편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김정희는 여러 지역을 답사하고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견주어 평가하는 탁월한 안목을 보여준 바 있다. 그의 업적 중 하나는 진흥왕순수비를 고증한 일이다. 또한 북청 유배 시절 청해토성 출토 석창과 석부를 고고학적으로 파헤쳤음은 물론 평양지방에서 출토한 ‘千秋萬歲’ 명문이 새겨진 기와를 보고 그 글자체가 전한대의 것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또한 경주 평야에 있는 신라무덤을 造山이 아닌 왕릉으로 해석하는 등 고고학의 방법에 접근된 연구방법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열 개의 벼루가 바닥을 드러내고 팔뚝 밑으로 309개의 비가 들어 있어야 한다는 그의 고백과 같이 추사체는 편집증처럼 무섭게 파고들어 이루어낸 노력의 결실이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업적을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서체 탐구를 통해 한대동경을 서한과 동한으로 편년·분류해내기도 했다. 이것을 근거자료로 참고하면 『博古圖』와 『西清古鑑』 등 여러 문헌들은 향후 한대 청동기물 편년과 분류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동경 문양 및 시대 분류의 기준서가 되었으니 국내에서 한대 고고학 연구의 선구적 역할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안 경 숙 |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永康元年(A.D. 167년)鏡「臨漢鏡銘」, 종이에 먹, 26.7x33.2cm, 개인소장



永康元年(A.D. 167년)鏡

그림으로 떠나는 터키여행

| 글·그림 | 권은성

박물관회에서 떠나는 여행은 뭔가 다르겠지. 약간의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켜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떠난 여행이었다. 더구나 터키는 메소포타미아·오리엔트·그리스·로마·비잔티움·이슬람이 거쳐 간 인류 문명의 집합체가 아닌가.

젊은 날의 여행에서는 무엇을 보고 올까, 무엇을 입고 갈까, 무엇을 사 가지고 올까를 먼저 생각했었다. 추억거리 하나쯤 만들 수 있는 행운을 바라면서, 이번에는 나이를 먹어서인지 가는 날까지 발목 잡히는 일만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나는 사진을 찍고 설명을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흐릿해졌다. 그러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주그리고 앉아 조그만 폴꽃 하나라도 그리고 나면 공기가 부드러웠는지, 어떤 풍경이 펼쳐 있었는지, 그 때의 내 감정까지 오래도록 기억할 수가 있었다. 이번 여행에도 간단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와 풀·가위까지 가지고 떠났다. 그림을 그리고 박물관 티켓이나 신문도 오려 붙이고, 꽃을 말려 붙이면서 그림여행일기를 만들었다.

터키에서 만난 꽃들

베르가마의 아크로폴리스 유적지에 도착해서 내 시야에 들어 온 것은 그 넓은 곳을 덮고 있는 들꽃무리였다. 들꽃 사이로 붉게 난 흙길을 걷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면서 일행들과 아테네 신전·제우스 신전·베가모 교회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돌 틈으로 솟아난 가냘픈 줄기 끝에 하얀 꽃이 바람에 흔들거렸다. 앙증맞은 마가렛이었다. 잠시 사진을 찍고 버스로 내려오라는 가이드의 말이 떨어지자 마가렛을 스케치하고 몇 개를 따서 붙였다. 말린 마가렛을 보면 '베르가마'의 뜻이 '높다'라는 것과 바람이 많이 불던 그날이 떠오른다. 푸른 하늘과 청정한 공기도 여전히 느껴진다.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은 기둥 하나만 남아서 그 옛날의 웅장함을 상상만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방금 들어온 비잔틴 문은 사도 요한 교회가 있던 곳이라고 했던가? 십자가를 설명하는 가이드의 말을 들으면서도 내 눈은 어쩔 저렇게 개양귀비 색이 고울까? 어떤 놈이 예쁜가? 하고 꽃을 고르느라 바닥만 쳐다보았다. 다음 날 히에라폴리스의 언덕을 새빨강계 물들인 개양귀비꽃들은 모네의 그림을 떠올리게 했다. 털퍼덕 주저앉아 새파랗고 높은 하늘을 배경으로 개양귀비꽃들을 그려보고 싶었다.

안탈랴 바닷가의 가로수는 황금을 덮어 씌어 놓은 것 같더니 가까이서 보니 노란구슬 같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지중해성 기후에서만 자라는 황금아카시아나무라고 한다. 그곳에서 처음 본 꽃인데 지금도 모습이 선명하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계속 보여서 그런가? 아니다! 내가 그려보고, 한 가지 꺾어서 노트에 붙여 놓아서 이렇듯 기억에 남는가보다.

터키에서 만난 춤

코나는 경학적인 이슬람을 어려워하는 민중을 위해 젤랄레딘 루미가 메블라나 종단을 창시한 곳이다. 명상과 엑스타스를 통한 영성 수련법인 신비한 세마 춤을 보았다. 공연장은 우리만을 위한 조출한 공간이었다. 죽다며 세 명의 악음을 연주하였 온몸에 두른 수나서 팔을 감싼 인사를 했다. 망고 춤을 추는데, 글게 퍼지고 원 없이 돈다. 단순 무아지경으로 빠인이 나무통에 딸기를 하나 가득 들고 들어오는 꿈과 할아버지가 책 두 권씩 나누어 주는 꿈을 연달아 꾸었다. 깊은 의미를 두지 않고 좋은 꿈이었다고 생각기로 했다.



터키하면 벨리 댄스도 빼놓을 수 없다. 이슬람 여자들은 히잡이나 차도르를 두르고 다니는데 배꼽까지 내놓고 추는 벨리 댄스는 참 아이러니하다. 술탄의 여인들이 추기 시작한 유혹의 춤이다. 댄서들의 기교는 화려했다. 와야! 까무잡잡한 살결에 가슴을 거의 드러내고 흔들대니 아찔했다. 허리의 적당한 살집과 근육으로 무장된 무희들의 몸은 아름다웠다. 여행의 피로가 살짝 가셨다. 나는 한석봉 어머니처럼 킁킁한 곳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무희들을 스케치했다.

터키에서 만난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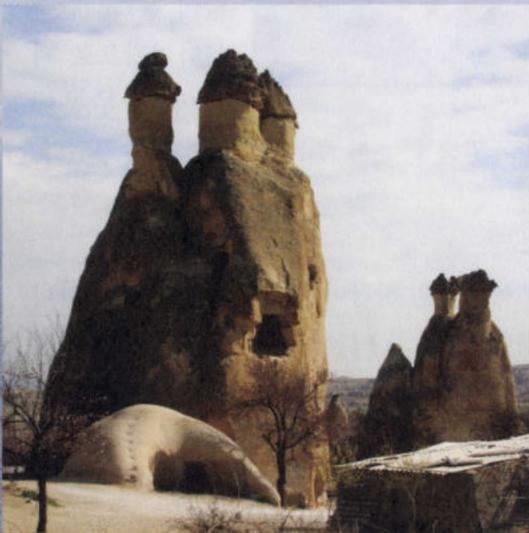
박물관에는 많은 유물과 보물들이 진열되어 있다. 즉, 터키에서 제일 값나가는 물건이 가득 모여 있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곳이라. 박물관회에서 간 여행답게 차낙칼레 고고학박물관·에페소 박물관·안탈라 고고학박물관·콘야 박물관·괴레메 야외박물관·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성소피아 사원·국립 고고학박물관·동양 타일박물관·토프카 궁전·돌마 바흐체 궁전을 관람했다. 에페소 박물관에서 다산의 상징인 아르데미스상과 가장 아름다운 神인 아프로디테상, 날개를 단 에로스 등을 보았다. 얼마 전 독서회에서 읽은 책 「그리스 신화」 덕을 톡톡히 보았다.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의 도자기 무늬들을 보면서 현재의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판단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호텔에서 들고 나온 메모지에 자유스럽고 대칭이 되지 않은 기하학적인 무늬들을 하나씩 그려보았다. 감탄이 절로 나왔다.

터키에서 만난 유적지

트로이 목마 유적지·베르가마의 아크로폴리스 유적지·히에라폴리스·파묵칼레·페르게·아스펜도스·케르반 사라이·데린구유·웃추히사르·양카라성·핫투샷수 등, 탁 트인 평야에 널려 있는 유적지들은 신선한 봄의 공기와 어우러져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에페소스 유적지였다. 아름다운 여인상으로 꾸며져 있는 셀수스 도서관의 큰 규모가 인상적이었다. 도서관 지하에서 창녀촌으로 통하는 길도 있었다니 웃음이 터졌다. 대리석 도로 한편에 여인의 옆모습과 왼발·하트·화살표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창녀촌을 광고하는 것이라니 그네들의 삶을 보는 듯 재미있었다. 많은 터키 학생들이 피약별 아래서 도서관을 그리고 있었는데, 나도 그들 사이에 끼여 콘테로 얼른 도서관을 스케치 해 보았다.



신비의 계곡 카파도키아도 잊을 수가 없다. 신의 능력과 자연의 조화로만 이를 수 있으리라! 해발 1000m 분지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이후에는 아랍인의 침략을 피해, 암굴을 파고 들어간 그들의 흔적이 남은 곳이다. 미로와 같은 연결 계단이 지하 속으로 끝없이 내려간다. 구경하는 동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네들의 힘겨웠던 삶에 연민이 들었다.

터키의 문화 유적지, 춤, 박물관 모든 것들이 생소하고 낯선 만큼 박물관 특별 회원의 특권을 마음껏 누린 경험이었다. 또 너무나 반갑고 예쁘게 본 때문일까? 터키의 삶과 문화 그 편린을 보았기에 눈으로 느끼는 사치도 대단하였다. 여행 중에 담아둔 터키의 바람과 들꽃들도 아직 가슴에 가득하다. 🌿



고양이와 나

서유미 | 회원 |

어디까지나 '만약'이라는 가정 하의 말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 하나를 골라 가지라고 한다면, 욕심 많은 나는 고민에 휩싸일 것이다. 청자칠보투각향로, 백자철화끈무늬병, 백제금동대향로, 청화백자 등 너무 많다. 하지만 눈 딱 감고 하나만 고른다면 和齋 卞相璧의 猫雀圖를 택하겠다.

묘작도를 처음 본 것이 언제인지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한번 보고는 머릿속에 각인되어버렸다. 화가가 변상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고양이 그림을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나는 역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인가보다. 그리고 묘작도는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 그림이다.

묘작도를 볼 때면 밑에 앉아 있는 검은 얼룩 고양이의 턱을 가장 먼저 보게 된다. 손을 뻗어서 하얀 턱을 긁어주면 고양이 목에서 고르르르르르 소리가 날 것 같이 실감나는 부분이다. 턱 뿐만 아니라 굽은 등 하며, 가지런히 모은 앞다리를 감싼 꼬리까지 고양이가 손에 잡힐 듯 하다. 또 나무 위에 올라간 얼룩고양이는 밑에 있는 얼룩고양이, 참새잡이에 눈짓하는 것 같다. 나뭇가지에 있는 참새들이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있는 걸 보니 나무 위 고양이는 소리는 안 내고 눈빛으로만 말하는 듯 한데, 정작 밑에 있는 고양이는 별 생각 없이 수수방관하며 구경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몇 초 후에 일어날 일을 상상해보면 더욱 재미있어진다. 아마도 나무 위에 올라갔던 고양이는 허탕치고 떨어질 것 같다. 물론 고양이인 만큼 착지는 가뿐히 하겠지만.



변상벽, 群雀雙猫圖, 18세기 후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화가의 집에 이런 고양이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집 마당도 비슷한 녀석들이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미고양이가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새끼 네 마리를 물고 와서 마당의 양지바른 한 켠에 자리를 잡았다. 추운 날씨에 새끼를 네 마리나 키우는 어미가 불쌍해서 생선반찬 먹을 때 마다 조금씩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로 새끼 몇 마리는 다 자라서도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그 중에 꼭 묘작도에 나오는 고양이들과 비슷한 녀석들이 있어서 볼 때 마다 그림을 생각하면서 재미있어했는데, 가끔가다 그림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 주기라도 할 때면 혼자서 웃곤 했었다.



김득신(1754-1822), 破寂圖, 「兢齋傳神畫帖」, 간송미술관 소장

반면 마당에 고양이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유쾌하지 않을 때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병아리 소리가 들려오기에 앞집 아저씨가 기르나 보다 생각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고양이들이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왜들 저러나 하는 생각에 창 밖을 보니, 어미 고양이와 새끼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 입에 뭔가가 물려있었다. 중 병아리였다. 아무래도 앞집 아저씨네 것 같았다. 짧은 순간의 갈등 끝에 기왕에 죽은 것, 고양이나 포식하게 내버려 두자고 결론 내고 다시 잠을 청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살펴보니 병아리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빼도 못 추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물론 그 이후로 앞집의 병아리 소리는 끊어졌다. 이럴 때는 兢齋 金得臣의 <破寂圖>가 생각난다. 만약에 죽은 병아리가 우리 집 것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체념하고 자리 들어가진 못했겠지. 아무리 졸려도 파적도에 나오는 남자처럼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가서 고양이를 혼내주려고 했을 것이다. 날쌔 고양이들이 나에게 잡힐 리는 없지만.

10월이 되어 텃밭에 심은 김장 배추가 웬만큼 자라면 배추 흰 나비들이 부쩍 많아지기 시작한다. 물론 배추 잎사귀엔 이미 구멍이 숭숭 나있다. 또 엄청나게 번져버린 페퍼민트 덩불엔 보라색 꽃들이 수 없이 많이 피고, 그럼 어김없이 보라색 부전나비들이 꽃을 찾아 날아온다. 그리고 덩으로 호랑나비까지 오는데, 이렇게 되면 새끼고양이들은 정말로 신난다.



김홍도(1745-1806), 黃猫弄蝶, 간송미술관 소장

나비를 잡겠다고 이리 저리 뛰는 고양이들을 보면 檀園 金弘道の <黃猫弄蝶>이 생각난다. 간송 미술관의 <단원대전> 때 처음 봤는데, 이것 역시 한눈에 반해버렸다. 그림도 그림이려니와 그 섬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관람을 끝나고 나오면서 인쇄된 황묘농접 복사본을 구입했다. 펄 대신 닭이라 진품에 비하면 정말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액자로 만들어 방에 걸어놓고 지금까지도 즐겁게 감상하고 있다.



변상벽, 菊庭秋猫, 18세기 후반, 간송미술관 소장



마군후(1750-?), 班猫假睡, 간송미술관 소장

마당에 국화가 피면 고양이들은 또 그림을 연출해 준다. 국화와 고양이 그림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변상벽의 〈菊庭秋猫〉다. 이 그림이 인상 깊은 이유는 평범하지 않은 고양이의 눈빛 때문이다. 처음엔 불만스러워 하는 눈빛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 뭔가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고양이의 앞쪽 어디쯤에 풀벌레라도 앉아있는 걸까? 같은 그림을 보고도 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馬君厚의 〈班猫假睡〉라는 그림을 발견했다.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보자마자 능글능글한 수고양이가 생각났다. 경험상 고양이란 동물은 새끼 때는 호기심이 많아서 매우 부산스럽다가도 다 크고 나면 먹을 것 찾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찌나 움직이기를 싫어하는지.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서는 쫓아내도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양지바른 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있다. 그림 그대로 자지도 않고 눈은 계슴츠레하게 반쯤 뜨고 있다.

조선의 화가들은 주변에 흔히 있는 것들을 어찌면 이리 아름답게 그렸는지……. 물론 그림에는 무병장수, 입신양명 등의 상징성이 들어있고, 그래서 장문의 논문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나만의 그림 즐기는 방법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고양이뿐이겠는가. 별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리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보자.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특별한 세상이 될 것 같다. 고양이들은 그 특별한 세상의 일부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고양이 그림들은 내가 그 특별한 세상을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멋진 매개체들이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미술관 테마전 “국보 제 301호 화엄사 괘불”

국립중앙박물관은 불교회화실에서 “국보 제 301호 화엄사 괘불” 테마전을 8월 31일까지 전시한다. 1653년에 제작된 화엄사 掛佛은 야외에서 열리는 불교의식에 사용하는 높이 12미터가 넘는 불화이다. 이번 전시는 최초로 화엄사를 떠나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靈鷲山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현존하는 가장 큰 연산회 괘불로, 초기 도상 중 완성된 구성을 보여준다.

중앙에 위치한 부처의 白毫에서 발하는 빛은 다섯 방향으로 뻗어 나가며 부처의 세계와 六道 중생의 모습을 비춘다. 부처 양 옆에 있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석가모니불을 보좌하며, 부처의 뒤에 위치한 제자와 나한들은 생로병사의 경계를 뛰어 넘은 존재들이다. 불보살 앞에는 예불과 공양을 위한 작은 탁자가 놓여 있으며, 그 위에서 사람들이 보시한 공양물과

오색의 향이 빛을 발한다.

화엄사 괘불이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보이는 것은 불화에 적용된 시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석가모니불과 보살, 나한, 제자들은 불화를 예경하는 사람들이 올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불보살의 앞에 놓인 탁자와 사천왕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적인 시점이다. 한 화면에 적용된 두 가지 시점은 괘불에 도해진 영취산의 설법회가 괘불이 펼쳐진 실제의 사찰 도랑에 파노라마처럼 재현된다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대형 불화를 펼침으로써 의식에 참석하듯 사람은 괘불 속 인물들이 현실의 도랑에 막 내려오는 것처럼 느끼고, 불화에 재현된 설법 공간에 참석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배 영 일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내 삶의 본·자·즐·모

서정희 | 회원 |

양증맞은 예쁜 팬지꽃들이 인사를 한다. 첫째 셋째 주 화요일은 교육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박물관에 오는 날이다. 구름이 끼여 있으면 그런 날대로, 눈부시게 화창한 날에는 마음이 맑아져서, 비가 오면 또 그 나름의 분위기를 만끽하며 행복한 발걸음을 옮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서인지 유난히 박물관에 사람들이 많다.

어릴 적 박물관에 가본 기억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내게 박물관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도 먼 존재였다. 그러다 막내가 네 살이 되면서 난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박물관을 드나들기 시작한지 어언 9년째가 되나보다. 처음에는 교수님 강의를 한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어둠속에서 내 연필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따로 복습 할 것도 아니면서,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것이 너무 많음에 놀라고, 자신의 무식함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렇게 애쓰다 어느덧 깨달음이 왔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즐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교육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자원봉사는 '내 삶의 본·자·즐·모.'이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꺼리를 네 글자로 줄인 말이다. 치료 레크레이션의 한 분야로, 본자즐모가 다양한 사람은 삶을 적극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한다. 내 삶에서 자원봉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높다.

“자원봉사하면 뭐가 좀 나오나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지만 경제적 가치로 환산 할 수 없는 고귀한 일이라 생각

한다. 내 작은 손길과 배려로 수업하는 교수님과 강의를 듣는 회원들이 불편없이 두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난 충분히 기쁘다. 교육자원봉사를 하면 한 강좌를 덤으로 수강할 수 있겠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임무 수행에 신경 쓰느라 강의 듣는데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자신의 수업시간에 결석을 할지언정 봉사시간은 칼같이 지키는 것이 교육자원봉사자들의 기본 자세다.

지금은 교수님들이 거의 파워포인트를 쓰지만, 몇 년 전만해도 영사기를 사용했다. 사진자료가 많을 때는 두 대의 영사기를 한 번에 조작해야하는데, 양손에 리모컨을 들고 마치 서부의 총잡이가 쌍권총을 쏘듯 리드미컬한 동작으로 화면을 조정했다. 특설강좌 회원은 나를 부러운 듯이 쳐다보곤 한다. 파워포인트로 볼 때, 글씨가 많으면 조명도 적절하게 바꿔주어야 한다. 사진을 볼 때는 선명도를 생각해서 실내를 약간 어둡게 한다. 나름 터득한 비법이다.

자원봉사도 프로답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내 평소의 지론이다. 그래서인지 어디 가서든 칠판에 뭔가 적혀있으면 벌떡 일어나 지우고,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는다. 그리고 무엇 더 할 것이 없나 두리번거린다. 오랜 동안 몸에 밴 습관이 나타나 나도 모르게 웃곤 한다. 역시 직업(?)은 못 속인다.

"박물관에 근무하시죠?"

지하철에서 졸다가 어떤 회원이 말을 걸어서 너무 놀라 깬 적이 있었다. 와아! 이제부터 인기판리 들어가야겠네. 아침이 되어 어딘가 갈 곳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을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회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베풀 수 있다면, 또 그것으로 사람들이 기뻐한다면 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스카프, 정말 멋지신데요. 참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다음 주 화요일이 기다려진다. 강의실 안은 본자즐모의 삼위일체로 인해 훈훈하다. 강의하는 교수님은 열정을 쏟을 수 있어서, 수강생들은 깨우치는 즐거움으로 얼굴에 미소가 만연해서, 나는 그들을 위해 작은 손길이나 베풀 수 있어서 좋다. 재미있게 강의하는 이태주 고고인류학 교수의 모습은 참 멋지다. 수강생들의 열의를 생각해도 가슴이 설렌다. 내 삶의 본자즐모로 생기는 아름다운 증독이다. 혹시 나만의 착각은 아닐까?



하나금융지주, 국립중앙박물관과 후원 협약체결



왼쪽부터 (사) 국립중앙박물관회 유창종 회장, 국립중앙박물관 최광식 관장, 하나금융지주 김종열 사장

하나금융지주는 5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회를 통하여 국립중앙박물관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하나금융지주 후원금은 박물관의 아시아관 '베트남실' 전시 안내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물관과의 지속적인 후원과 협력사업을 통하여, 다문화 대상자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하고, 그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갈 것이다. 🌐

| 다문화 프로그램 |



화폐 속 여러 나라



등 만들어 소원쓰기



다언어 브로슈어 (10개 국어)



포스터



국립중앙박물관 후원음악회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실내악

일 시 :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저녁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주 관 : 국립중앙박물관회

후 원 : 국립중앙박물관

공연프로그램

올리비에 메시앙, 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곡 외.

출연자

피아노 정명훈, 바이올린 데니스김, 첼로 송영훈

미르폭포

박물관 동쪽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비밀스런 통로인양 작은 오솔길이 보인다. 바둑판모양의 그 길 끝에 아름다운 미르못과 미르폭포가 있다. 물·나무·돌들이 어우러져 한국의 산자락, 심산계곡을 연출한다. 살짝 돌아 앉아있는 폭포는 산수정원의 핵심이다. 그 위로 수호신처럼 버티고 서서 폭포를 감싸고 있는 소나무들이 물그림자 속에서도 정겨워 보인다. 연못 속의 고목과 암석주변은 피어나는 물안개로 몽환적이다. 자연스럽게 놓인 바위의 계류는 심산계곡을 표현하고자 했고, 이러한 계류를 따라 건천, 수중절벽, 기암절벽 등을 반영하였다.

최우음문화재단 후원
1월 1일 일출행정 프로그램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박물관 후원사업·사회교육·자원봉사·공익적인 문화사업 등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 會 長 | 徐載亮·吳志哲

理 事 | 崔光植·金紅男·朴仙卿·朴亨植·申硯均

安聖基·李建茂·李斗植·李仁洙

田永采·鄭明勳·池建吉·崔林南

監 事 | 金義河·鄭建梅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수정회원으로 나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원, 은관회원 삼천만원, 청자회원 일천만원, 백자회원 오백만원, 수정회원 이백만원 이상으로한다.

■천마회원

千 信 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 昌 根
金 宗 烈 하나금융지주 사장

■금관회원

俞 相 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朴 容 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은관회원

柳 昌 宗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鄭 明 勳 서울시향 고문
金 鍾 漢 (주)종합전기 대표

■청자회원

趙 炳 舜 성암고서박물관장
金 榮 秀 변호사
玄 明 官
韓 奉 珠
愼 昌 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 永 珉 김&장 법률사무소
徐 載 亮 재)아름지기 이사
田 永 采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胡 鍾 一 호성홍업회장
申 硯 均 재)아름지기 이사장
李 雲 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金 英 惠 제일화재 이사장
李 美 淑 삼표산업
鄭 在 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 明 姬
朴 仙 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李 起 雄 열화당 대표
辛 永 茂 법무법인 세종 대표
李 仁 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辛 炳 讚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朴 載 蓮 성곡미술관 이사
李 鈴 子
柳 芳 熙 (주)풍산주택 사장
朴 海 春
金 宗 學
都 炯 泰
申 聖 秀
화가
갤러리 현대 대표
고려산업 회장

■백자회원

李 京 姬 수필가
洪 錫 肇 변호사
李 興 杓 국립중앙박물관회 직원
金 惠 蓮 대학강사
崔 科 南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李 健 茂 문화재청장
韓 載 京
柳 憲 辰 코한인터내셔널
高 錫 銘 (주)크린텍 회장
李 殷 子
鄭 叔 熹
崔 惠 玉

책을 만들면서..

유월의 햇살을 즐기는 푸르른 숲이여!
그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요,
우리도 강렬한 빛을 원한다오. (水)

'거울아 거울아 어찌 할까..'
무슨 말 하고 싶는지 너는 알겠지.
그래 그냥 옷자. 너 보면서 크게 웃어야겠다.(愛)

거울아거울아
이세상에서누가제일이쁘니
~~~~~내가  
라면 얼마나 좋을까@@(리)

누굴까,  
청동거울속 어른거리는 낯선이는. (정)

'성장통'  
참 예쁜말이다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아이가 걸음마를 익히는 것 처럼  
눈물겹지만 기특하다.(河)  
  
비온 날 밤의 맹꽁이 소리  
이른 새벽 안개에 조용해질 때쯤 알았습니다  
시간은 보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임.(진)

열정·아이디어·땀방울  
그리고  
땀을 스치는 따스한 바람, 여름이다.(信)

발행일 | 2008년 6월 20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유창중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애경·진수옥·하영남

진행 | 강신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  
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국립중앙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  
135 Seobingoro,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